



전주 팔경 기린봉 자락 웰빙지 여기서 문화행사 열어 기쁩니다

본보는 임현기 인후3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났다.
임 위원장은 인후3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제15회 기린봉
호반 문화축제' 추진위원장이기도 하다.

임현기 인후3동 주민자치위원장



▲위원장님 인후 3동은 어떤 곳입니까?
인후3동은 전주 팔경 중 하나이자, 백제의 발상지인 기린봉 자락에 위치 하고 있다.
천년 전주의 시작점으로 자부심이 서린 곳이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 체육시설이 공존하는 전주시 최고의 웰빙지역이다.
1993년 아중택지개발사업으로 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현재 3만 5천명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 하고 있다.
특히, 기린봉 및 아중호수와 함께 아중도서관, 아중체력공원, 평생학습센터, 전북장학숙 등 각종 문화와 교육 시설이 지리 잡고 있어 한 차원 높은 여가생활과 질 높은 교육활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위원장님 전주와는 어떤 인연이 있나요?
고향은 전남 고흥군이지만, 전주와 인연은 10여년 정도 됐다.
1975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직으로 공무원을 시작했다. 2010년에 공직을 마치고 아들이 운영하는 전주 수한병방원을 개원했다.
현재는 병원 행정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장님 인후 3동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전주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시급한 부분은 해오를 사거리에서 평화동과 남원으로 곧바로 연결 도로가 우선시 된다. 현재는 옛 리베라호텔 쪽으로 2차선만 연결 되어 있어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아중호수가 우아동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이용하는 시민들 중에 인후3동 지역민들도 많다.
밤에 산책을 할 경우 어두운 문제가 있어, 시민들이 밤에 호숫가를 거니는 부분에 대해 고려한다.
조명을 더 많이 설치해 주고, CCTV를 설치 해 준다면



“인후3동, 아중호수·도서관 체력공원 등이 자리잡아 여가생활의 혜택 누릴 수 있어 주민들과 함께 연 문화축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전해

위험적인 요소가 사라져, 더 많은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위원장님 이번 행사인 '기린봉 호반 문화축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년보다 유난히 길었던 여름 더위가 물러가고 청명한 가을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문화축제를 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사가 순조로이 진행 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송효철 기자

